

<2025년 8월 27일 수요말씀>

1. 지금이 중하다. 2. 육도 영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상대로 변화하여라.

본 문 :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 뜻을 배우고 알고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지금이 중하다.

둘째, 육도 영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상대로 변화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지금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구상을 받아 더욱 변화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펴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이후의 시대도 따라 행해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핵으로 하되,
과거에 하신 기본적인 말씀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그 시대에 주셨습니다.
- 살아갈 때는 지금 현실이 아주 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도 중하지만, 지금이 중합니다.
당장 현실에 걸을 때는
지나온 길보다 지금 현재의 길에
발을 잘 디디고 가야 합니다.
지금 판단이 중하고, 지금 말함과 지금 행함이 중합니다.
- 이를 위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부르며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받으시고,
말없이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도
겪어 가는 길을 보면 알고, 그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들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같이 된다.” 라고 말을 확실히 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속 시원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기도 받았다.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각종으로 합당하게, 은은하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 행하십니다.
 고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해 주었구나. 저 사람이 해 주었구나.’ 합니다.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스스로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이 하셔도
 기도한 것과 원하고 바라던 문제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 저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자신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일할 자에게 감동을 주시니,
 행한 자를 자세히 파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물들로 행케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 하나님은 만물을 스스로 움직이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누가 움직여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물들은 동물도 식물도 곤충들도 고기들도 그 종류대로 크다가
때가 되면 순리의 법칙 따라 번식하고 존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곡식이 스스로 크며 작동하여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그 존재물의 씨 근원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이 하지, 하나님이 하시냐.” 합니다.

존재를 위한 작동은 그 존재물이 하지만,
그리 작동하게 창조하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가꾸고 행하여 얻을 것을 얻듯이
하나님이 만물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온도도 조절하면서 가꿔 오셨습니다.

○ 만물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를 못 합니다.

만물은 제2의 인간 생명체입니다.

○ 지구는 자궁입니다.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며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활동하듯이
만물도 인간도 모두 지구에서 먹고 호흡하고 활동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만물이 발전되고 온전하게 형성되는 대로
사람들도 그에 따라 미(美)와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 만물들이 제대로 존재를 못 하면

생명력이 약해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각종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 나무, 바람 등 만물의 균형이 깨지면
그에 따라 사람도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얼굴과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제대로 된 미도 잃고, 정신도 잃게 됩니다.

가령 비가 안 오고 가물면 습기가 없어져서
사람의 얼굴도 몸도 건조해집니다.

지구도 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구가 아름다워야 사람도 아름다워집니다.

○ 이처럼 만물과 인간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곡식이

땅의 토질, 거름 등의 영향을 모두 그대로 받듯이
만물과 사람도 그러합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들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고로 법칙을 벗어나면 죄로 보고 심판하고 청소하십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청소하셔야만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권에 존재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육, 마음, 혼, 영이 깨끗해질수록
생명력이 더 강하게 되고, 편하고, 이상세계가 됩니다.
깨끗해야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빛나는 영으로서 강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 육이 강철 철판같이 강하면 부딪혀도 걱정이 없습니다.
신앙도 이같이 강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장애물도 강하게 헤쳐 갑니다.
사탄도 악한 영도 도망갑니다.
동물도 약하면 강한 동물이 잡아먹으려 쫓아오고,
강하면 내가 잡아먹힐까 봐 도망갑니다.
고로 모두 신앙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 절대자 하나님과 일체 되면
강해지고, 뜻을 알게 되고,
빛에서 보니 판단을 잘 하게 됩니다.

- ◎ 사람이 신앙을 잘못 택하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절대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 우상을 섬기는 다신 종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도
가다가 열매 없는 잡초같이 됩니다.

○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육성으로만 강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사람은 육성이 강하니

육을 중심한 종교가 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육계의 삶이 끝나고 육성을 벗어나

영의 세계로 가면 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이성으로 생각한 것과 모두 전혀 다릅니다.

영성이 강해야 영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성의 세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갑니다.

○ 육을 중심한 육성의 종교, 우상의 종교를 섬기면

영은 사망으로 가고, 육도 죽어 영원히 끝납니다.

이 말이 그들의 이성의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육이 열심히 했으니 영이 좋은 세상 갈 줄 알았지만,
실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십니다.

수천 년까지 형벌을 주십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종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로 끝납니다.

- 종교를 잘못 선택한 자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를 키우면서
열매 열기 원하는 자와 같습니다.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닙니다.
돌이 곡식 씨가 되지 않습니다.

- 육으로 한 것은 육이 행하여 육으로 끝나고,
영으로 한 것은 영이 행하여 영원합니다.
행하는 대로 그 세계에서 끝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씨를 심으면 씨는 사라지고 새싹이 납니다.
그같이 씨와 같은 육은 최종 사라지고,
새싹과 같은 영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 ◎ 씨를 심고 가꾸고 농사짓는 것을 계속하면

땅이 좋아지고, 토질 따라 작물도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려면 접붙여야 합니다.

-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대로 살아 그와 일체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과 접붙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 시대로 행하시니,
새 시대에 주시는 더 좋은 말씀과 각종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접붙이는 ‘새 역사’입니다.

- 그러므로 새 역사의 사람들은
더 차원 높여 변화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능자와 동행하며
영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 맞지 않으면 사람끼리도 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께 맞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 변화입니다.
생각, 성격, 마음, 생각, 영체, 육체를
하나님께 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 심은 솔씨가 커서 거목이 되듯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월명동이 개발 전에서 완성해 놓았을 때로
완전히 변화한 것과 같이 ‘변화’입니다.

- 모든 존재물 중 온전히 변화된 것만이 땅의 존재물이 되었듯이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과 주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영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존재합니다.
변화같이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영상 1〉 시작

- 월명동 소나무 작품들은
기본 형상에다 수천 번씩 가위질하여 변화된 나무들입니다.
나무에서 좋지 않은 가지를 잘라 주고 변화시키니
작품 형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영상 1〉 끝

- 그냥 두면 일반 소나무입니다.
일반 소나무도 몇 년만 계속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주면
작품 소나무가 됩니다.
- 월명동 개발할 때 변화되는 것을 보니 힘이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밤중에 선생 혼자 나와
해 놓은 것을 구경했습니다.
- 여러분도 자기 영, 혼, 육을 계속 강력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환난 때도 행할 것 행하면서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 월명동도 개발 전에는 산, 밭, 논 모두
자기 존재대로만 존재해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불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보고
불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개발하고 나니 월명동이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도 섭리사에 오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었습니다.
월명동이 개발되었듯,
행하여서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 다른 종교 가서 죽도록 하여 나름대로 변화하여도
하나님 구상대로 못 하고 자기 구상대로 한 것입니다.
구시대에서 하니 해 놓아도 구시대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시대 따라 성장이요, 변화입니다.
- 섭리사, 하나님 천 년 역사에서 개발하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대로 시대 최고 높은 차원에 삽니다.
다른 곳의 조경과 월명동 조경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도 그러합니다.

- 행하라고 계속 말씀 주는 이때,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온전히 변화해야 합니다.
계속 교정하며 조금 더 하면 더 온전해집니다.
해 놓은 데다 더 하니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차원이 됩니다.

-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월명동 들을 쌓을 때 하나님 코치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 전도 역시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말씀이 다르구나! 이 역사구나.’ 합니다.

종교는 말씀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 ◎ 지금이 정말 중한 때입니다.
지금의 때와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구상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